

서울 중구, 노인 맞춤형돌봄 '복지부장관상'

스마트 기술 기반 밀착돌봄·정서 지원 호평
유관기관 협업체계·민간기업 지원 연계 활발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5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서울 지역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노인 일상 밀착 돌봄을 지원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는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운영부터 관리, 사업성과 등 정량·정성 지표를 종합 심사해, 총 8개 지자체가 시상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구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2.7%에 달하는 초고령 도시로, 이 중 홀몸노인 비율이 31.9%에 이른다. 구는 이런 특성을 고려해 체계적인 노인 돌봄 정책의 필요성을 제법하며 촘촘한 지원을 펼쳐왔다.

먼저, 구는 지역 돌봄 협력체계를 공고히 다졌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을 비롯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협업체를 운영하며 위기 사례를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왔다. 민간기업과도 활발히 협력해 안전가드 지원, 주거환경개선, 문화체험 등 노인 일상에 필요한 지원을 연계했다.

구는 예방적 돌봄에도 힘을 쏟았다. 돌봄 현장 최전선에 있는 생활지원사가 취약 노인의 안부를 주기적으로 살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자살예방·복지정책 등 다양한 교육으로 생활지원사의 역량을 강화해 돌봄서비스의 질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노인 가정의 움직임, 온도, 조도 등을 모니터링해 이상징후를

파악하며 실시간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다. 또한 한과·족욕 등에는 방문과 전화를 통한 안부확인만을 두지 않았다.

특히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정서 돌봄은 노인들이 큰 호응을 얻었다. 동국대학교 학생들이 노인의 추억과 사연을 바탕으로 AI 추억영상을 제작해 감동과 웃음을 선사하며 세대 간 공감의 장을 열었다.

또한 반지하나 노후주택에서도 손쉽게 식물을 기를 수 있는 스마트 화분을 노인 100가구에 지원하고, 원에프프로그램 등을 함께 제공하며 노인들의 마음도 세심하게 챙겼다.

이영준 기자 yyy@sinimilbo.co.kr

관악구, 영유아 양육가정에 年 30만원

'강종강중 성장양육' 사업 추진
2~4세 자녀 가정에 매년 지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지역내 양육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강종강중 성장양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양육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신청은 정무24(보조금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신청 시기는 아동의 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이며, 아동의 연령이 2세, 3세, 4세, 5세 때마다 매년 신청하면 된다.

구는 이번 '강종강중 성장양육 지원금'이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상용품 혁신의 지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민호 기자 mmh@sinimilbo.co.kr

강북구, 내년 노인 3956명에 공공일자리

노노케어·환경정비등 수행
8~19일 사업 참여자 모집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충을 위해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구는 2026년도 사업에서 공익활동형, 역량활동형, 공동체사업단, 취업지원형 등 다양한 형태의 주요 사업은 때를 내다소 환경정비, 경로대형 청소·배식, 노노(노노노노)케어, 폐전전지 수거, 전기가 충전소 관리, 점자 스티커 제작, 늘봄학교 학습 보조, 카페 운영,

재활용사업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활동이다.

모집 대상은 강북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직역연금수급자이며, 취업지원 및 일부 사업은 60세 이상도 지원할 수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정부 부처 및 지자체 일자리 참여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노인일자리여가와 복지로서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지만, 최종 선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행기관 방문 상담을 거쳐야 한다. 선발은 소득인정액, 활동능력, 건강상태, 세대구성, 참여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된다.

문민호 기자 mmh@sinimilbo.co.kr



복지관 이용자 욕구조사 포럼
에 참석한 최호근 구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전 세계와 '미래교육 선도 협력' 공유

경기도교육청, 9일 국제포럼
국내·외 전문가 1000명 참가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9일 소노 캄 고요에서 '2025 경기미래교육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도교육청은 'Unknown to Learn: 교실의 미래를 해킹하다'를 주제로 전 세계 교육전문가와 함께 '미래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담론을 선도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공동 개최한 '2024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에 이어 단독 주최하는 행사다. 국내외 미래교육 전문가, 교육관계자, 교육인 등 모두 1000여 명이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2024 포럼에서 논의된 미래교육 의제를 심화·확장하고 경기교육의 선도적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며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이번 포럼을 기획했다.

이날 포럼에는 세계의 석학들이 연속 기조 강연에 나선다. 세계적인 인공지능 석학인 토미 월시(Toby Walsh)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교수, 유네스코 관계자, 미국 교육부 전 관계자 등 해외의 미래를 해킹하러 온 주제자도 전 세계 교육전문가와 함께 '미래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담론을 선도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공동 개최한 '2024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에 이어 단독 주최하는 행사다. 국내외 미래교육 전문가, 교육관계자, 교육인 등 모두 1000여 명이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2024 포럼에서 논의된 미래교육 의제를 심화·확장하고 경기교육의 선도적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며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이번 포럼을 기획했다.

이영준 기자 yyy@sinimilbo.co.kr

'손목닥터' 연계 대사중후군 관리 강화

구로구, 모바일 헬런지 운영
건강목표 수행 포인트 적립

서울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이달부터 사설사가 시행하는 '대사질환지9988' 사업과 연계해 대사중후군 관리 사업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손목닥터9988 앱에서 건강 목표를 수행하면 포인트가 적립되고, 보건소 제정된 결과와 연계해 참여자 건강 상태 개선 여부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다.

'대사질환지9988'은 서울시가 시행하는 모바일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로, 대사질환후군 예방과 건강 생활 습관 형성을 목표로 한다. 사용자가 손목닥터9988 앱에서 목표를 수행하고 결과에 따라 점수를 적립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참여 대상은 최근 1년 내 보건소에서 대사중후군 진단을 받고 '건강주의권', '대사중후군', '악

동작구, 영양플러스사업 '서울시 1위'

건강 물리교 영양플러스' 호평
건강 식생활 교육 만족도 높여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환)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영양플러스 사업' 평가에서 서울시 1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정국 시·군·구 보건소를 대상으로 사업 운영의 우수성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시행됐다.

▲대상자 발굴 및 사업 운영관리 ▲보충 식품 공급 및 관리 ▲

지역지원 활용 및 연계 등 3개 분야, 8개 항목을 기준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평가가 이뤄졌다.

구는 참여자 요구를 반영한 활동 중심 프로그램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한 요리'를 비롯해, 건강식생활 실천 카드 제작·배부 ▲ 맞춤형 전문 강사 시연 ▲ZOOM을 활용한 실시간 요리(초기·중기)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율과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

이영준 기자 yyy@sinimilbo.co.kr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환)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영양플러스 사업' 평가에서 서울시 1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정국 시·군·구 보건소를 대상으로 사업 운영의 우수성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시행됐다.

▲대상자 발굴 및 사업 운영관리 ▲보충 식품 공급 및 관리 ▲

간추린 뉴스



지난 1일 봉화중학교에서 열린 287회 중앙마을에 참석한 류정기 구청장(왼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앙, 학부모들과 '교육환경 개선 현장 소통'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정기)가 최근 봉화중학교에서 '제287회 중앙마을'을 개최하고 학부모들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소통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류정기 구청장을 비롯해 봉화중학교 교장 및 학부모 38명이 참석해 약 60분간 학교 시설과 통로로 안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급식실 차양과 교재와 시설장비 환경 개선 등을 건의했으며, 특히 겨울철 통로로 미끄럼 사고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구는 예산이 필요한 사안은 2026년 지원을 적극 검토

인천 중구, 한파 취약 노인 안전망 구축

인천 중구가 겨울철을 맞아 한파와 폭설 등으로 인한 취약·홀몸노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파 대비 취약·홀몸노인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올해 11월부터 오는 2026년 3월까지 긴급한 안전사고 등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보고 체계와 비상 연락망 등을 구축·운영하고, 주거·생활환경 점검, 안부 전화 등을 통해 수시로 홀몸노인의 안전을 확인한다.

또한 지역내 경로당 96개소에 한파와 폭설 수에 따라 월령군 11만~47만명의 난방비를 6개월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내 재능자원 수급 노인 등에게 방한용품과 안전 용품을 지원하며, 한파에 대비할 계획이다.

특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 인력을 활용해 한과·대설 관련 주위보·경보 발령시 해당 지역의 홀몸노인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

인천=문민호 기자 mcs@sinimilbo.co.kr

서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가온 예술축제 성료

충남 서산시는 지난 3일 서산문화복지센터에서 2025년 가온 예술축제가 개최됐다고 4일 밝혔다.

서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시민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예술을 주제로 화합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지난 1년간 서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예술적 감성과 재능을 가진 중증장애인들의 음악 공연과 미술작품 전시가 이뤄졌다.

미술작품 전시회에서는 아크릴화, 모자이크화, 도자기, 아이클레미 등 중증장애인들이 손수 마련한 작품 200여점이 시민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음악 공연으로는 서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예술음악팀의 합주곡, 늘봄 예술인의 기타 합주, 해피하모니의 가족 합창이 이어져 큰 박수를 받았다.

서산=최복규 기자 cbg@sinimilbo.co.kr

서초구, 방치 자전거 수리... 취약계층에 전달

서울 서초구가 거리에 버려져 폐기될 예정이었던 무단방치 자전거 13대를 '재활자전거'로 새롭게 탄생시켜 저소득층 가정에 기증했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증가하는 무단방치 자전거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 순환과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09년부터 방치된 자전거를 재활용해 취약계층에 기증하는 '재활용 자전거 나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10월까지 총 403대의 방치 자전거를 수거했으

며, 이 중 상태가 양호한 자전거를 선별해 브레이크·체인·바퀴 등 핵심 부품 교체와 세척·정비를 마쳤다.

이렇게 재탄생한 상인용 11대, 어린이용 2대 총 13대의 자전거는 서초3동, 반포3동, 방배본·2·4동, 양재2동, 내곡동까지 7개 동에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됐다.

이후에 최근 3년간 총 49대의 자전거가 재활용 자전거로 재탄생했다.

박소진 기자 zini@sinimilbo.co.kr

인천 강하군, 산업보건의 현업근로자 건강상담

인천 강하군이 지난 3일 아간근로자, 재활용 선별 작업자, 주민 폐기시설 근로자 등 현업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보건 의와 함께 2025년 하반기 건강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건강상담에는 총 42명이 참여했으며,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등 기초 건강검사와 함께 근골격계질환, 스트레스 예방, 아간근로 등 근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상담이 진행됐다.

또한 사전에 근무환경별 유해인자 분석을 바탕으로 실시한 특수건강검진 결과를 반영해 사후관리 소견까지 포함한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올해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건강상담 회수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근로자의 참여율과 만족도를 더욱 끌어올렸다.

아간근로 중인 참여자는 "와사, 강사사 선별검사가 직접 상담을 해 주셔서 매우 유익했다"며 "건강상위 안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천=문민호 기자 mcs@sinimilbo.co.kr